

코로나상황에서의 보육실습에 관한 인식연구: Q방법론의 Q모집단 구성을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중심으로

정희정*

본 연구는 Q방법론의 Q모집단 구성을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육실습 경험을 통한 보육실습생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인식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는 A시에 위치한 B대학교에 재학 중인 10명의 예비 보육교사인 영유아보육전공 학생으로 FGI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육실습생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보육실습 기관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4주 직접보육 실습기간은 보육실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있어 짧다고 인식하였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존의 보육실습 기간인 6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보육교사를 포함한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으로 보육실습시의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 6주가 아닌 4주의 직접보육실습으로 실습지도 선생님께 많이 못 배운 점을 아쉬워하였으며 4주의 보육실습 기간동안 지도교사는 보육실습생의 보육직무 역량과 자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예비 보육교사인 영유아보육전공 학생들의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Q방법론을 활용한 보육실습 인식에 관한 주관성 연구의 Q모집단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보육실습 체계 및 보육실습의 실행방안의 마련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코로나, 보육실습, 예비보육교사, Q방법론, FGI(Focus Group Interview)

논문 투고일: 2021. 4. 26. 최종심사일: 2021. 5. 30. 게재확정일: 2021. 6. 12.

*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Corresponding author: Chung, HeeJ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1 Baekseok-ro, Dongnam-gu, Cheonan, Korea, hjchung@bsc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교육에서 큰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0년 2월 대학의 개강 연기 권고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개강 연기를 실시하고 2020년 1학기 전체 수업을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하였다(정희정·김애림·주하나, 2020). 이후 대학별로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육부는 2021년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2021년 국가자격증 취득 등 의무 현장실습 조치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안내시까지 어린이집에서의 6주 직접보육 실습은 4주 직접보육 실습과 2주 간접보육 실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1학기는 2회까지 분할실습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2학기부터는 2회 이상 분할실습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교육부, 2021).

보육실습의 중요성은 2005년과 2016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2005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서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필수이수 교과목으로 규정하였고 보육실습 기준으로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연속으로 하여야 하며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인가 받은 보육시설만이 실습기관으로 인정되고 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인 보육교사가 보육실습을 지도하도록 강화되었다. 어린이집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사이버교육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해소 등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에 따라 2016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2017년 1월 이후 입학생 혹은 보육실습을 시작할 경우, 기존의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보육실습기간이 확대되었으며 보육실습기관도 평가인증 유지 기관으로 변경되었고 교육영역 및 영역별 필수교과목 변경 및 대면교육이 강화되었다. 또한 2019년 6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육실습시작 당시 정원이 15인 이상이고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또는 종전 평가인증을 유지) 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인정하고 있다.

보육실습은 국가가 발급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과정일 뿐만 아니라

양성교육기관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현장에서 실제 적용해보는 과정으로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실제 보육현장에서 직접·간접적으로 배우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Machado & Botnarescue, 2011). 보육교사로서 필요한 역할, 지식, 구체적 교수학습 기술 및 태도, 교직에 대한 신념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예비보육교사에게 전수(傳受)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다(Campbell & Williams, 1983; Joyce, 1988). 따라서, 보육실습을 이론으로만 알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교사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교사로서 자질을 갖추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박은혜·이은화, 1998). 또한,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실습을 통해 보육실습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며, 스스로의 자기반성과 성취감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림·곽경화, 2013). 예비보육교사들이 실습의 경험을 통해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하여 실천적 지식을 강화시키고 보육교사로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세우는 심층적인 경험이 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이지선·이성희, 2018). 이와 같이 예비보육교사인 보육실습생은 기존에 습득한 관련 지식을 보육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점검하여 보육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게 된다(Harford & MacRuairc, 2008; Perry, Hutchinson & Thauberger, 2008).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실습을 통해 영아와 유아를 보육하는 실제현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므로, 보육실습은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정이다(김선영·서원경, 2010).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영유아 발달을 극대화하므로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관계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다(김명신, 2020).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동시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구성원들과 바람직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보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가족과 상호 호혜적인 지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형성한다(이미경, 2020). 이러한 보육업무를 수행하는데 교사의 가치와 신념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가진 가치와 신념은 교사가 된 이후에 실제 경험과 그 이전에 받았던 교육을 통해 수립되는데(김승자·김진선, 2011), 보육실습은 보육교사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기본적 자질을 수립하고 교사로서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보육실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보육실습 경험은 예비보육교사에게 있어 다양한 역할을 해봄으로써 보육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술 습득 및 교사로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하도록 하고 성공적인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준다(이선미, 2012). 또한, 보육실습이 예비보육교사에게 상당한 스트레스 원천으로(Edward, 1993; Sumsion & Thomas, 1999),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박성미, 2011; 김선희·

김규수, 2008; 유병예·양성은, 2013). 보육실습에서 예비보육교사의 성공 경험과 다양한 만족은 보육교사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며 긍정적인 경험으로 작용하지만(임수진·안경숙·이혜원, 2013), 보육실습을 통해 예비보육교사들이 실습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의 어려움, 본인의 실습 준비 부족, 보육현장과 이론의 괴리감을 느낄 때, 원장과 교사 그리고 실습생과의 관계의 갈등, 영유아 지도의 어려움과 실습내용의 부담을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박은주, 2016; 김선영·서원경, 2010). 보육실습생은 출퇴근이 정해진 규칙적인 생활, 새롭게 만난 보육교사 및 부모와의 인간관계 형성, 다양한 업무수행, 영유아와의 상호작용과 보육 활동 진행 등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지만, 보육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실습생은 지식, 기술, 태도 측면에서 모두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만족감을 얻게 될 것이다.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 전 자질평가와 실습 후 만족도는 정적관계를 가졌으나 현장에서의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적절한 실습내용 선정, 실습지도 교사의 자질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실습환경 제공이 중요하다(성은영, 2014; 박은주, 2016). 보육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인성과 자질은 현직 보육교사가 되면서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양성교육기관에서의 교육, 특히 보육현장에서의 보육실습을 통해 형성된다. 보육실습생들은 보육실습 경험을 통하여 진로를 선택하는 기회를 접하므로 양질의 보육실습 경험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Poulou & Maria, 2007). 따라서, 예비보육교사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실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보육실습동안 무엇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보육실습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보육실습 체계 및 보육실습 내용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최근 2020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면역력과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영유아들의 집단시설인 영유아보육시설 등은 2월 27일 전국적으로 휴원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에까지 전파가 되면서 5월까지 연장되었고(보건복지부, 2020),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로 정상운영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2021년 7월 12일 0시부터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어린이집은 휴원하며 가정 돌봄이 가능한 경우 등원을 제한하고 가정 돌봄이 불가피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집합교육은 금지되었다(보건복지부, 2021). 이런 상황에서의 보육실습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 인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보육교사가 될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에 대한 인식을 통해 보육실습

체계 및 보육실습 내용 등 보육실습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대부분의 보육실습 연구는 양적인 연구에 치중되어 있거나 질적 연구, 문헌을 통해 보육실습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 현상을 심층적으로 드러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진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육실습생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속성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보육실습에 대한 예비보육교사인 보육전공 학생의 인식은 학생 개인의 가치, 신념, 태도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실습생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학생의 주관성의 구조에 따라 형성된 의견과 경험을 기반으로 보육실습생의 보육실습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화하고 분석하는 데 적합한 도구는 Q방법론이다.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 연구를 위해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접근 방법, 연구 방법이며 분석방법이며, Q방법론은 질적 연구와 양적연구의 혼합연구방식으로 질적인 개념을 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길병옥·이소희·이송이·정희정, 2020). 따라서, Q방법론은 바로 이러한 개인 내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의 가정에 근거를 두고 개인의 내적 구조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이다(Mckweon & Thomas, 2013). Q방법론을 적용한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 인식에 관한 주관성 연구에 대한 연구절차는 문헌연구 및 표적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와 결과분석, Q모집단 구성 및 추출, P표본 선정과 Q분류 및 결과처리해석 및 유형화 등의 다섯 가지 단계이다. FGI는 연구자들이 선정한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탐색하면서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보다 깊고 폭넓게 도출할 수 있으며 (Krueger & Casey, 2015), 유연하고 개방적이나 동시에 참여자들의 주관성이나 집단 역학에 좌우될 수 있다는 양면(兩面)을 가진 연구 방법이다(신인순, 2018). FGI와 같은 심층 인터뷰 방식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해석이 수집 가능한 구체적 유형의 대화나 담화로 나타나면서,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관점과 의견의 수렴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며, 특정 연구주제나 사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Wimmer & Dominick,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기반으로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 현장을 이해하고 보육실습에 대한 보육실습생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Q방법론을 활용한 보육실습 인식에 관한 Q모집단 구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보육실습 체계 및 보육실습 내용 마련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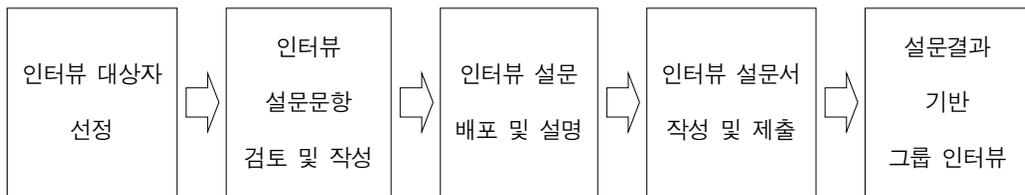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 현장을 이해하고 보육실습에 대한 보육실습생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의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 경험을 통한 보육실습생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육실습 경험을 통한 보육실습생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Q방법론 적용을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림1]에서와 같이 FGI 인터뷰 대상자 선정, 설문서 작성 및 배포, 설문서 작성 및 제출, 설문결과 기반 그룹 인터뷰의 절차를 시행하였다.



[그림 1] FGI를 활용한 인식유형 파악 연구절차

1. 연구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A시에 위치한 B대학교에 재학중인 10명의 예비보육교사인 영유아보육 전공 학생으로 코로나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의 6주 직접보육 실습대신 4주 직접보육 실습과

2주 간접보육 실습으로 2021년 1학기 중에 보육실습을 진행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 실습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보육실습 인식을 탐색하고자 보육실습을 완료한 시점인 2021년 6월 중순에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이 일반적으로 5~10명으로 구성되며 집단의 규모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한다(Krueger & Casey,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10명으로 구성된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현황

번호	성별	보육실습기간	전공	실습기관
P1	여	4주	영유아보육	민간어린이집
P2	여	4주	영유아보육	민간어린이집
P3	여	4주	영유아보육	민간어린이집
P4	여	4주	영유아보육	민간어린이집
P5	여	4주	영유아보육	국공립어린이집
P6	여	4주	영유아보육	국공립어린이집
P7	여	4주	영유아보육	민간어린이집
P8	여	4주	영유아보육	민간어린이집
P9	여	4주	영유아보육	국공립어린이집
P10	여	4주	영유아보육	국공립어린이집

2. 자료수집 절차

보육실습을 경험한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FGI의 필요성 및 내용, 면담 방식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참여자가 아닌 어린이집에서의 6주 직접보육 실습대신 4주 직접보육 실습과 2주 간접보육 실습을 경험한 예비보육교사 5인을 대상으로 2021년 3월에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어린이집선정부터 보육실습 완료까지의 보육실습 인식에 대한 예비연구를 통해 본 연구를 위한 적절한 면담 시간을 계획하고 FGI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10명의 예비보육교사인 영유아보육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6월에 FGI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에게 FGI전에 FGI의 목적과 방법, 개인 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FGI결과의 활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모든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였다. FGI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FGI 질문서

순서	구 분	질문내용
1	실습기관 선정	1. 코로나 상황에서 보육실습 기관을 구하는 과정은 어떠했나요?
2	실습기관 정보	2. 실습을 하였던 어린이집 유형과 실습한 반은 몇 세반이었나요?
3	보육실습 운영내용	3. 4주 실습기간동안 보육실습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4	보육활동	4. 보육활동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였나요?
5	놀이관찰	5. 영유아 놀이관찰시 중점적으로 관찰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관찰 일지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6	영유아 상호작용	6. 보육실습 기간동안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은 어땠나요?
7	지도교사의 실습지도	7. 지도교사 선생님은 어떻게 실습지도를 하였고 보육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8	보육실습에 대한 종합평가	8. 전반적으로 4주간의 보육실습을 통해 경험한 것과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보육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FGI 방법을 통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새롭게 인식한 실습 경험을 공유하면서 시작에서 종료시까지 어린이집 보육실습 전 과정에서 보육실습경험을 통한 보육실습생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인식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예비연구를 통해 준비된 FGI 질문을 집단면담과 이후에 진행한 개별 면담결과를 종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Giorgi(1985)가 제시한 네 가지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2~3번 정도 읽고,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유목화를 시킨 다음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담내용을 살펴보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그 속에 나타난 심리학적 의미를 통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였고 인터뷰 내용 중에서 자주 언급되고 자세한 내용과 참여자들의 감정, 열정, 격렬함이 표출되고 많은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내용에 주목하여 결과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하위범주와 범주를 내용 영역별로 추출하여 명명화하였으며(Gusdal, Josefsson, Thors Adolffson, & Martin, 2016) 질문 항목별로 유사답변에 대하여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를 다시 핵심 키워드별로 분류한 다음 주제별로 종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음성기록, 전사, 연구참여자들의 대화 분석을 포함하거나 관찰, 현장노트, 연구자의 기억을 기반으로 보육실습에 대한 인식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육전문가 1인, 질적분석 전

문가 1인에 의해 삼각검증(triangulation)이 실시되었고 이들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에 대해 다시 영유아보육전공 교수 1인이 최종 검수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참여자 검토를 실시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연구결과를 확정하여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기관 선정

실습기관, 실습 지도교사 등 실습환경의 질에 따라 실습경험은 많은 차이를 갖게 되므로 (김용숙·박지영·최영중, 2010; 염지숙, 2003), 어린이집 평가제를 통해 보육의 질이 입증된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은 실습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보육실습기관 선정은 보육실습생이 선호하는 기준과 보육실습기관으로서 인정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학교와 가족회사를 뺀 어린이집 검색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검색을 통해 실습기관을 선별한 후 실습생이 어린이집에 개별 연락하여 실습동의를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코로나 상황에서 외부인인 보육실습생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하는 동안 실습생을 통한 감염 등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많은 어린이집에서 실습생을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실습의 기회를 잃을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했으며 여러 어린이집에 전화를 하여 어렵게 실습기관을 구하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보육실습생이 자신이 원하는 실습기관이 아닌 보육실습을 동의해주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진행하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습생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실습 기관을 구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10곳에 전화를 해봤지만 다들 실습생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11번째 어린이집에 전화를 했을 때 받아주셔서 어렵게 보육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P1, 민간)

실습시작 직전에 실습하기로 한 어린이집에서 코로나로 실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연락이 온 후 다른 실습 기관을 구해 보려고 여러 어린이집에 전화했지만 모두 실습을 거절해서 처음 실습을 허락을 해주셨던 어린이집에 연락을 하여 다시 보육실습 허락을 받아서 실습을 할 수 있었어요.(P2, 민간)

실습 기관을 구하려고 내가 평소에 생각해둔 국공립기관 어린이집에 다 전화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인지라 10곳 넘게 다 거절하였고 그 중 마지막에 전화했던 한 곳에서 보육실습을 승낙해 주셔서 그 곳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어요.(P5, 국공립)

원하는 실습기관을 찾아 연락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받아줄 수 없다는 어린이집이 많아서 실습기관을 구하기 어려웠고, 코로나로 인해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만들지 못하여 병원에 가서 비싼 비용을 주고 검사를 하였고,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검사결과를 요구하여 코로나 음성이라는 검사결과를 실습기관에 제출하여야 했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는 과정이 힘들었어요.(P6, 국공립)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실습생을 받아주기 어렵다고 하고, 전화를 하는 곳마다 다들 안 된다고 해서 실습처를 구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고 결국 집에서 먼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하게 되어 힘들었어요.(P7, 민간)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두가 실습기관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학교와 가족회사를 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원하는 일부 학생들은 쉽게 실습기관을 구했다. 보육실습기관을 구하기 위해 처음 전화한 어린이집에서 바로 보육실습 수락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족회사 체결 여부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방침에 따라 보육실습의 가능 여부가 달라졌다.

코로나로 인하여 실습생을 받지 않는 곳들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운이 좋게 집 가까운 거리에 가족회사 어린이집이 있어서 쉽게 실습기관을 구했어요.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아 버스를 한번만 타고 갈 수 있었어요.(P3, 민간)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에 실습 문의 전화를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실습 기관을 바로 정했습니다.(P8, 민간)

저는 집 근처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하고 싶었어요. 개원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집이라 첫 실습생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원장님께서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실습기관을 구할 때 큰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P9, 국공립)

집 근처에 가족회사 어린이집이 있어서 첫 번째로 실습 문의를 여쭙봤을 때 된다고 하셔서 실습기관을 구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P10, 국공립)

2.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 운영내용

보육실습 기간 6주간 동안 실습생은 영유아를 관찰하고, 실습반의 보조교사로 참여하기 시작한다. 예비보육교사들이 영유아의 발달적 수준을 보다 많이 고려하게 되고 보육의 실제적인 부분의 지식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예비보육교사들이 실습을 모두 마치고 초임교사가 되었을 때 자질이 함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김보영·심윤희, 2018). 실습생이 기관 및 해당 반의 하루 일과에 익숙해지면, 보육실의 흥미영역 중 한 개 영역에 해당하는 보육활동을 계획하여 직접 실행해 보고 마지막으로 반일이나 일과 전체에 대한 보육계획안을 실습생이 직접 작성하고, 교재교구를 준비하여 영유아를 지도하는 과정으로 보육실습을 진행하게 된다(한국보육진흥원, 2017). 교육부의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2021년 국가자격증 취득 등 의무 현장실습 조치계획’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6주 직접보육실습은 4주 직접보육실습과 2주 간접보육실습으로 운영되었다. 2주의 보육실습 기간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보육실습 지도교사는 보육실습생의 보육실무 역량이 향상되도록 6주에 해당하는 보육실습 내용을 지도하였다. 특히 보육실습생에게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며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를 통해 보육실습생은 다양한 연령 반의 보육활동과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의 4주간의 보육실습 운영내용은 기관과 지도교사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6주가 아닌 4주 직접보육실습으로 실습 지도 선생님께 많이 못 배운 점을 아쉬워하였으며 4주의 보육실습 기간동안 지도교사는 보육실습생의 보육직무역량과 자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실습 1주차에는 어린이집 적응을 위해 만 1세 반 영아들과 상호작용위주로 실습을 진행하였

다. 2주차에는 만 1세 반 담당 선생님께서 2세 반에서도 보육실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2주차부터 만 2세 반으로 실습반을 변경해 주셨다. 3주차에는 같은 만 2세 반이지만 분위기가 다른 반으로 보내셔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다. 3주차에 하루는 부분수업을 진행하였다. 4주차에는 교구 제작하고 일일 수업을 하였고 일일 수업을 하는 것을 보시고 선생님께서 하루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주셔서 하루 더 일일 수업을 했어요.(P1, 민간)

첫째 주는 유아들과 친해지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유아들이 생각보다 친근하게 다가와 주어서 수월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고, 둘째 주는 유아들의 놀이에 참여하여 유아들의 놀이 형태를 알아 보았고, 셋째 주에는 다음 주의 플레이 데이 때 필요한 교구들을 직접 제작해보면서 여러 교구의 제작 방법들과 기술을 배웠습니다. 넷째 주에는 유아들의 플레이 데이를 도와주고 부분수업을 위해 교구를 만들어 직접 수업을 진행하며 상호작용을 하였습니다.(P2, 민간)

첫 주는 적응기간을 가지고 부분 수업 계획안과 2가지 교구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둘째 주는 첫 번째 부분수업 후 두 번째 주에는 부분 수업 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교구계획안도 제출을 하였습니다. 셋째 주는 연계수업 계획안을 제출하고 교구를 제출을 했고 연계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넷째 주에는 올데이 보육계획안을 제출하고 진행했습니다.(P4, 민간)

1주차는 아이들과 친해지고 아이들의 특성을 관찰하고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2주차는 선생님께서 다른 반 선생님들에게 양해를 구해 만 4, 5세 반의 참관수업을 하였고 3주차는 아이들과 함께 야외놀이도 하고 어린이집 행사 준비를 했어요.(P8, 민간)

보육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적 지식을 내면화하고 실천지식을 보다 많이 체득하여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전문지식을 갖추고 그 특성에 맞게 영유아를 관찰하고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는 등 보육실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었으나 보육실습기간이 짧았다고 인식하였다.

영아들이 저를 처음 보아서 경계해서 영아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스킨십을 많이 하였고, 상호작용도 많이 하였어요. 그리고 영아와 영아, 교사와 영아의 상호작용 등을 관찰하였어요. 영아들에게 놀이를 연계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영아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기저귀

도 알아보았어요.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흥미 영역 보육활동 계획안을 작성하여 놀이 교구를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였고, 내가 만든 놀이 교구로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일화기록을 작성하였어요.(P6, 국공립)

1주차에는 아이들의 성향과 선생님께서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시는지 시간에 따라 어떤 보육 형태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탐색하였고 2주차 때는 선생님을 보조하여 아이들의 기저귀 갈이나 오전, 오후 간식을 먹을 때 아직 아이들이 손가락질 또는 포크질을 잘하지 못하여 올바르게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었어요. 3주차 때는 선생님께서 주임 교사여서 가끔 자리를 비우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영역별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어요. 4주차 때는 교구를 실제 직접 만들어서 부분 수업과 올데이 수업을 진행하였어요.(P5, 국공립)

놀이중심의 누리과정이었기에 자유놀이 활동시간에 아이들을 관찰하며 예의주시를 했습니다. 그 아이와 최대한 같이 있으며 밥먹을 때, 놀이할 때, 야외활동할 때 관찰하였습니다. 안전게시판에 있는 그림을 보며 영아가 집중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안전 게시판을 보는 영아에게 다가가지 “이게 뭐야?” 라고 말하며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면 안돼!” 라고 씩씩하게 말하던 영아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특히 바깥놀이 활동을 할 때 관찰대상인 영아가 너무 활발하여 여기저기 뛰어다녔는데, 다른 아이들도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조금 버거움이 있었습니다.(P9, 국공립)

이번 보육실습은 코로나로 인해서 6주에서 4주로 줄어든 실습이었어요. 4주로 진행하다 보니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듯했어요. 이제 막 적응을 한 것 같은데 실습이 끝나버린 것 같아 아쉬웠고 6주로 진행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도선생님을 잘 만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실전이다 보니 확실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실습은 정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요.(P2, 민간)

내가 만든 교구에 흥미를 보이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했어요. 4주 동안 실습을 하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아들의 안전과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4주 동안 영아들과 선생님들과 정들어 마지막 날에 너무 아쉬웠어요. 4주 실습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

습하며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지만,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 6주 실습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P5, 국공립)

3. 코로나 상황에서의 영유아 상호작용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돕는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보육실습생은 보육현장 관찰을 잘 해야 하며 영유아 관찰과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 상태, 놀이의 특성, 집단 활동 시간의 행동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보육활동 및 지도방법을 분석하고 보완해야 한다. 보육교사와 영유아 상호작용은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사와 영유아간 상호작용, 영유아와 영유아, 영유아와 교구간의 상호작용 관찰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상호작용 방법을 배울 수 있다(한국보육진흥원, 2017). 코로나 상황에서 보육실습생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은 놀이 활동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으로 어린이집 일과 중 가장 중추적인 부분으로 영유아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였다. 보육실습을 하면서 영유아가 상호작용에 잘 응해주지 않고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기도 하였으며 보육실습생은 실습과정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업과 지도,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지도 교사와 실습생, 영유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상황에서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실습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지만 하루종일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해서 땀이 너무 많이 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더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마스크를 씌우면서 영아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마스크가 없었다면 영아들과 소통할 때 영아들의 어휘력이 더 많이 활발하게 발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P1, 민간)

코로나로 인해 나는 마스크를 써서 힘든 표정을 숨길 수 있었지만 유아들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하였고 유아들 역시 답답해하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점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P2, 민간)

아이들이 아직 언어구사를 잘하지 못하고 목소리가 작아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상호작용할

때 아이들의 입 모양과 표정을 보고 상호작용을 못하는 점이 아쉬웠어요.(P6, 국공립)

아이들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를 알고 말하지 않아도 잘 쓰고 있지만, 아직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서 말을 알아듣는 것이 어려울 때도 많았어요.(P8, 민간)

마스크를 쓰니 무엇보다 언어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들이 꽤 있었고, 부분수업을 진행할 때 아이들도 마스크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답답해하였고, 소통이 쉽지 않아 안 좋았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을 보지 못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렵구나라고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P9, 국공립)

영아들을 처음 봤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 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상호작용을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어 영아들의 말을 잘 못 듣는 상황이 있었어요.단(P10, 국공립)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답답하고 불편하였고, 영아반을 담당해서 많이 안아주는데 마스크를 잡아당겨 줄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외놀이 시간에 영아들이 마스크를 답답해하기도 하고, 친구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기도 하여 끊어지거나 친구 얼굴이 긁힐 수 있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영아의 표정을 정확히 못 보고 목소리도 잘 안들려 영아와 상호작용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P7, 민간)

4. 코로나 상황에서 지도교사의 지도와 상호작용

보육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인 보육실습생에게 훌륭한 교사상뿐만 아니라 모델이며 조언자로서 역할을 한다. 보육실습을 통해 영유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게 된다(김현자, 노희연, 이영, 2009). 또한, 지도교사에 따라 실습의 내용과 질이 크게 달라진다. 보육실습과정에서 보육실습생은 지도교사의 보육활동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통해 예비보육교사로서 보육직무를 배우고 익혀 보육실무 역량이 향상되므로 보육실습에서 지도교사의 보육실습지도 내용과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 6주가 아닌 4주 동안 보육실습으로 실습지도 선생님께 많이 못 배운 점을 아쉬워하였다. 4주 동안의 보

육실습 기간동안 지도교사는 보육실습생의 보육직무역량과 자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나를 맡아주신 지도교사 선생님은 정말 교사생활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항상 나에게 교사는 엉덩이가 무거우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시며 자잘한 정보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까지 빠짐없이 알려주시려 노력해주셔서 감사했고, 선생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모토는 배움이라고 말씀해주시며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들을 보면 절대 지나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보육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배울 점이 많았던 선생님이셨습니다.(P1, 민간)

지도 선생님은 기본적인 보육방법을 잘 알려 주셨고 부족한 점이나 더 추가할 부분을 시간을 내면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자신감이 좀 부족한 편인데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 하라고 격려해 주셨고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과 조언을 해주셨어요.(P3, 민간)

지도교사는 친절하고 착하셔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잘 설명해주었고 수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 교사께서 도와주셨습니다. (P4, 민간)

처음 실습 갔을 때 영아들에게 소개도 안 시켜주고 바로 아이들과 놀아 주라고 하여서 당황스러웠고 청소를 자세히 안 알려주고 하라고 해서 난감할 때가 있었으며 딱히 좋다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P10, 국공립)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하였고 실제로 아이들과 놀이를 할 때, 부분 수업이나 올데이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셔서 추가 보완할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P5, 국공립)

지도교사 선생님은 저를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상의하여 우주반(만4, 5세), 하늘반(만 4세)반에도 실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고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때 바로 상황을 제지할 수 있는 법, 이런 상황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법,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설명해주셨습니다.(P8, 민간)

저와 함께한 지도교사 선생님은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었습니다. 또 편안하게 해주셔서 실습 기간동안 정말 즐겁게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P9, 국공립)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Q방법론의 Q모집단 구성을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육실습 경험을 통한 보육실습생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보육실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는 A시에 위치한 B대학교에 재학중인 10명의 예비보육교사인 영유아보육전공 학생으로 FGI를 실시하여 보육실습생들이 실습기관 선정부터 보육실습 완료 시점까지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린이집 보육실습 상황과 보육실습 운영내용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보육실습생들의 보육실습 인식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기관 선정,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 운영내용, 코로나 상황에서의 영유아 상호작용, 코로나 상황에서 지도교사의 지도와 상호작용의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보육실습생들은 보육실습 기관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4주 직접보육 실습기간은 보육실습을 통한 보육실무 역량을 향상하는 데에는 짧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도 기존의 보육실습 기간인 6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보육교사를 포함한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으로 보육실습시의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 6주가 아닌 4주 직접보육실습으로 실습지도 선생님께 많이 못 배운 점을 아쉬워하였으며 4주의 보육실습 기간동안 지도교사는 보육실습생의 보육직무역량과 자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에 대한 인식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상황에서 외부인인 보육실습생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하는 동안 실습생을 통한 감염 등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많은 어린이집에서 실습생을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실습의 기회를 잃을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했으며 여러 어린이집에 전화를 하여 어렵게 실습기관을 구하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보육실습생이 자신이 원하는 실습기관이 아닌 보육실습을 동의해주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진행하게 되었다. 유지은(2020)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기관을 선정하기 쉽지 않아 예비보육교사들은 많은 고비를 경험하게 되면서 불확실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비보육교사의 양성을 위해 보육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연합회가 연계하여 각 지역별 보육실습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발굴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지하여 예비보육교사인 보육실습생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려움 없이 보육실습기관을 구할 수 있도록 보육실습 지원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교육부의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2021년 국가자격증 취득 등 의무 현장실습 조치계획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6주 직접보육실습은 4주 직접보육실습과 2주 간접보육실습으로 운영되었다. 2주의 보육실습 기간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보육실습 지도교사는 보육실습생의 보육실무역량이 향상되도록 6주에 해당하는 보육실습 내용을 지도하였다. 특히, 보육실습생에게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며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를 통해 보육실습생은 다양한 연령반의 보육활동과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6주가 아닌 4주 직접보육실습으로 실습지도선생님께 많이 못 배운 점을 아쉬워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4주간의 보육실습 운영내용은 기관과 지도교사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4주의 보육실습 기간동안 지도교사는 보육실습생의 보육직무역량과 자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실습기관, 실습 지도교사 등 실습환경의 질에 따라 실습경험은 많은 차이를 갖게 되며(김용숙·박지영·최영중, 2010, 염지숙, 2003), 지도교사의 보육활동은 예비교사의 자질과 교육 철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유병예·양성은, 2013).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서 4주 직접보육실습동안 보육실습생이 기존의 6주 보육실습 내용을 충분히 경험하고 배울 수 있고 전국의 어린이집 실습지도 교사가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보육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에서의 4주 보육실습 지침 및 매뉴얼을 임시적으로 제작하고 공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 상황에서 보육실습생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은 놀이 활동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으로 어린이집 일과 중 가장 중추적인 부분으로 영유아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였다.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실습현장에서 영유아들과 접촉하는 경험을 통해서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갖게 된다(김보영·심윤희, 2018). 보육실습을 하면서 영유아가 상호작용에 잘 응해주지 않고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

는지 몰라서 당황하기도 하였으며 보육실습생은 실습과정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업과 지도,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은 연령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는데 영아를 보육하는 교사는 양육적 역할이 강조되고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적 역할을 하는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된다(김양은·하지영, 2016).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서 4주 직접보육실습으로 실습기간이 짧아졌지만 보육실습생이 다양한 연령별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고 직접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보육실습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코로나 상황에서 지도교사와 실습생, 영유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상황에서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병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영유아들의 언어발달과 교사와 보육실습생, 영유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입술이 보이는 투명마스크착용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보육실습 지도교사는 예비보육교사인 보육실습생에게 훌륭한 교사상뿐만 아니라 모델이며 조연자로서 역할을 하며 지도교사에 따라 보육실습의 내용과 질이 크게 다름을 알게 되었다. 보육실습과정에서 보육실습생은 지도교사의 보육활동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통해 예비보육교사로서 보육직무를 배우고 익혀 보육실무 역량이 향상되었고 보육실습에서 지도교사의 보육실습지도 내용과 지도교사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좋은 보육교사상을 정립하였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6주가 아닌 4주 동안 보육실습으로 실습지도 선생님께 많이 못 배운 점을 아쉬워하였다. 또한 4주 동안의 보육실습 기간 동안 지도교사의 보육실습 지도가 보육실습생의 보육직무역량과 자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보육실습생들은 보육실습 경험을 통하여 진로를 선택하는 기회를 접하므로 양질의 보육실습 경험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Poulou & Maria, 2007), 보육실습 지도교사는 보육실습생에게 교수자이자 협력자, 지원자의 역할을 한다.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교사는 보육실습생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교수과정의 협력자로서 보육실습생의 보육실무 역량이 향상되도록 정서적인 지지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서 보육실습 기간이 짧아진 현 상황에서 보육실습생의 보육실습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보육실무 역량이 향상되도록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실무 역량이 높고 보육실습지도 경험이 많은 보육교사를 실습지도 교사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예비보육교사인 영유아보육전공 학생들의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가 Q방법론을 활용한 코로나 상황에서의 보육실습

인식에 관한 주관성 연구의 Q모집단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코로나 상황에서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보육실습 체계 및 보육실습의 실행 방안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21).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21 국가 자격증 취득등 의무 현장실습 조치계획 알람(교육부 산하 협력일자리정책과-621, 2012.02.05. 공문).
- 길병옥·이소희·이송이·정희정(2020). Q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나람·곽경화(2013).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에 대한 이미지와 갈등의 변화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3(4), 277-304.
- 김명신(2020).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7(3), 39-54.
- 김보영·심윤희(2018). 6주 보육실습에 대한 보육실습기관의 인식, 한국보육지원학회, 14(6), 19-34.
- 김선영·서원경(2010). 보육실습 현장에서 실습생이 들려주는 스트레스와 대처. 아동학회지, 21(2), 135-150.
- 김선혜·김규수(2008). 유아교육기관 실습지도교사의 역할 인식과 수행에 따른 예비교사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17(2), 223-233.
- 김승자·김진선(2011).보육교사의 교육신념과 전문성인식이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8(2), 31-52.
- 김양은·하지영(2016).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 어려움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593-619.
- 김현자·노희연·이영(2009). 예비유아교사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회, 56, 31-48.
- 김용숙·박지영·최영종(2010). 예비유아교사들의 실습기관유형에 따른 조력과정의 인식 차이 연구, 한국 열린유아교육학회, 15(1), 311-333.
- 박성미(2011). 보육실습생의 실습생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혁신연구, 21, 21-40.
- 박은주(2016). 예비보육교사의 적성이 보육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1), 163-182
- 박은혜·이은화(1998). 반성적 사고 신장을 위한 교육실습지도. 교과교육학연구, 2(1), 187-204.
- 보건복지부(202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시도교육감 영상회의 개최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603&dev=0&searchType=S&statusYN=W&page=2&s=moe&m=020402&opType=N>
- 보건복지부(202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38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보도자료)
- 성은영(2014). 예비보육교사가 보육실습에서 느끼는 어려움 탐색. 아동보육연구, 10, 39-55.
- 신인순(2018). 청소년의 체형활동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FGI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7(3), 175-207.
- 염지숙(2003). 유아교육실습: 예비교사들의 경험 이야기, 한국교원교육학회, 20(2), 223-248.
- 유병예·양성은(2013). 예비보육교사의 실습 경험에 관한 과정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95-119.
- 유지은(2020). COVID-19 환경에서 예비보육교사들이 경험한 보육실습의 어려움. 사회복지경영연구.

7(2). 171-187.

- 이미경(2020). 어린이집교사의 정서지능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7(3), 55-22.
- 이선미(2012).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 경험에 대한 질적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 19(4), 179-200.
- 이지선·이성희(2018). 보육실습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소집단 멘토링 경험-원격 평생교육원 보육 실습생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연구*, 20(3), 1~28.
- 임수진·안경숙·이혜원(2013). 교육실습 전후 예비유아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수행 기대에 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3(4), 27-46.
- 정희정·김애림·주하나(2020). 코로나위기에서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유형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1359~1381.
- 한국보육진흥원(2017). *양성교육기관에서의 보육실습지도*, 서울: 명인문화.
- Campbell, L. P., & Williams, J. A.(1983). Supervising the student teacher: What is really involved? *NASSP Bulletin*, 465, 77-79.
- Edward, M.(1993), "What is wrong with practicum? Some reflections", *South Pacific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1(1): 33-43.
- Giorgi, A.(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신경림 외 역(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서울: 현문사.
- Gusdal, A. K., Josefsson, K., Thors Adolfsson, E., & Martin, L.(2016).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about the situation of family caregivers to patients with heart failure-a focus group interview study. *PloS one*. 11(8). 160-302.
- Harford, J. & Gerry MacRuairc, G.(2008). Engaging student teachers in meaningful reflective practic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4, 1884-1892.
- Krueger, R. A., & Casey, M. A. (2009). *Focus group: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4rd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Krueger, R. A., & Casey, M. A.(2015). *Focus Groups(5thed)*.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 Machado & Botnarescue(2011). *Student teaching: Early childhood pacticum guild(7th ed.)*. Cengage Learning
- Mckweon & Thomas(2013). Mckweon, B. F., & Thomas, D. B. (2013). *Q Methodology*. Newbury Park, CA: Sage.
- Perry, N. E, Hutchinson, L, & Thauberger, C(2008). Talking about teaching self-regulated learning Scaffolding teacher's development and use of practices that promote self-regulated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7, 97-108.
- Poulou & Maria(2007). "Personal teaching efficacy and its sources: student teachers' receptions." *Educational Psychology* 27, 191-218.
- Sumsion, J. & P. Thomas(1999), "Managing student teacher stress associated with the practicum", *Journal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20(3), 327- 336
- Wimmer, R. D., & Dominick, J. R. (1994). *Mass media research*. 유재천 · 김동규 역(1995). *매스미디어 조사방법론*. 서울 : 나남.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hildcare Practice during the Corona Pandemic: FGI(Focus Group Interview) for Q Population Formation of Q Methodology

Chung, Hee-jung*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childcare practice in the corona pandemic using a FGI (Focus Group Interview) for the Q population composition of the Q methodology and to understand the subjective and individual perception of childcare trainees through childcare practice experience.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conducting a FGI with 10 preliminary childcare teachers who were enrolled in B University located in A city majoring in early childhood c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t was very difficult for preliminary childcare teachers to find a childcare practice institution during the corona pandemic. The four-week direct childcare practice period (practicum), which was temporarily applied due to the corona pandemic, was perceived as too short to improve childcare practice competency. It was recognized that it was necessary to have the practicum for 6 weeks. In addition, it was difficult to interact with infants and toddlers during childcare practice because they and the childcare teachers had to wear masks in accordance with the Corona Prevention Guidelines. In the corona pandemic, it was regrettable that I did not learn much from the practical guidance teacher during the 4-week direct childcare practice which would have been more effective if 6 weeks long.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n the perception of childcare practice student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childcare who are preliminary childcare teachers during the corona pandemic, the Q methodology is used as basic data for the composition of the Q population to perform subjective research on childcare practice perceptions and preliminary childcare teacher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research data for the preparation of a desirable childcare practice system and implementation plan for childcare practice that can strengthen the childcare practice capabilities of children.

Key Words: Corona, childcare practice, preliminary childcare teachers, Q methodology, FGI(Focus Group Interview)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Baekseok Culture University